

하박국 3:1-15: 하박국의 기도

1 이것은 시기오돗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이다. 2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 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3 하나님은 데만에서 오신다. 거룩하신 분께서 바란 산에서 오신다. (셀라) 하늘은 그의 영광으로 뒤덮이고, 땅에는 찬양 소리가 가득하다. 5 질병을 앞장 세우시고, 전염병을 뒤따라오게 하신다. 6 그가 멈추시니 땅이 흔들리고, 그가 노력하시니 나라들이 떠난다. 언제까지나 버틸 것 같은 산들이 무너지고,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은 언덕들이 주저앉는다. 그의 길만이 영원하다. 7 내가 보니,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난리를 만났구나. 8 주님, 강을 보고 분히 여기시는 것입니까? 강을 보고 노를 발하시는 것입니까? 바다를 보고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구원의 병거를 타고 말을 몰아오시는 것입니까? 13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악한 족속의 우두머리를 치십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을 뿌리째 뽑아 버리십니다. (셀라) 14 그들이 우리를 흠으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에, 숨어 있는 가엾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들이 입을 벌릴 때에, 주님의 화살이 그 군대의 지휘관을 꿰뚫습니다. 15 주님께서서는 말을 타고 바다를 밟으시고 큰 물결을 휘저으십니다.

- 하박국 3 장 전체는 하박국의 기도인데, 15 절까지 이번 공부에서 다룹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하박국이 간구하는 대목은 2 절밖에 없고 나머지는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회상하는 내용 (3-15 절),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16-19 절)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절에서 시기오돗은 악기의 이름이거나 시의 종류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 2 절에서 하박국은, 유다에 예정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줄로 알고 수용을 합니다. 그가 간구하는 내용이 재난을 피하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닌 것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 3 절에서 15 절까지의 내용은 출애굽 과정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절에 나오는 '데만'은 어떤 특정 지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남쪽 땅' 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지나온 광야 지역, 즉 하나님과 같이 지냈던 지역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셀라' 라는 것은 시편에 71 번,

하박국서에 3 번 나오는 말인데 정확한 의미는 모릅니다. 다만 음악 용어로 어떤 추임새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 5 절에 나오는 '질병' 과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방법으로 사용된 전염병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예가 되는 것이 신명기 28 장 21 - 22 절에 나오는 여러 질병입니다.
- 6 절에서, 산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흔들리고', '산들이 무너진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 능력 그리고 진노의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예를 볼 수 있는 곳이 출애굽기 19 장 18 절, 시편 18 편 7 절입니다
- 7 절에서 '구산' 과 '미디안' 은 에돔 땅에 살던 아랍 부족들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15 장 14-15 절은 출애굽 때에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두려워하였다고 나오는데 그 중에 에돔의 지도자들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8 절은 출애굽기 7 장 14-24 절에 나오는 나일강 물을 피가 되게 하신 사건, 여호수아기 3 장 14-17 절에 나오는 요단강 물을 멈추신 사건, 출애굽기 14 장 21-31 절에 나오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 군대를 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신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 9 절의 내용은 벼락을 떨어지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활을 쏘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11 절은 내용은 여호수아기 10 장 11-13 절에 나오는 기브온 전투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태양과 달이 멈추도록 외쳤는데 태양이 전투가 끝날 때까지 지지 않고 중천에 머물렀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 12 절에서 나라들을 짓밟는다는 뜻의 단어는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밟아 떨어내는 과정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아모스 1 장 3 절에서 '타작한다' 라는 말이 사용되었는데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 13 절은 출애굽기 19 장 6 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하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 삼으신다는 말씀이 13 절의 앞 부분내용과 부합됩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있는 '악한 족속의 우두머리' 는 내용상 이집트의 바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 14 절과 15 절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이집트 군대를 멸하신 일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입니다.